

인도네시아의 섬유 산업

- 내수 호조로 5년간의 황금기 전략 수정 <2/3>

◎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근심이 오락가락

인도네시아 섬유 공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오르는 데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적지 않다. 공원들의 최저 임금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이와보 그룹의 방직 기업인 프리마 텍스코는 2009년 12월기 결산에서 증수 증익(增收 增益)을 달성하였다. 장기 분야(長技 分野)인 바티크(batik :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하는 꿀벌의 밀랍을 무늬에 따라 칠하여 방염 염색하는 염색법)가 유네스코(UNESCO)에 세계 무형 문화유산(世界 無形 文化遺産)으로 등록되어 수요를 늘리는 등 인도네시아 내부의 수요가 왕성하여 업적을 늘렸다.

프리마 텍스코 사장에 의하면, 이 회사는 자가 발전 장치(自家 發電 裝置)를 갖고 있지만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지금은 매전 방식(買電 方式 : 요금이 싼 전력을 사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 요금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전기 요금 대책(電氣 料金 對策)으로서 공장의 냉각 장치(冷却 裝置)인 칠러(chiller)의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신형 기기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이와보 그룹의 봉제 기업인 다야니 가먼트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고급 트렁크스(高級 trunks : 운동용 팬츠)를 수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직물제 트렁크스를 연산(年産)으로 950만 매, 드레스 셔츠(dress shirts)는 60만 매를 제조하였다. 그동안 생산을 멈추고 있던 이불잇도 2009년 12월부터 다시 월산(月産) 1,000 매 정도씩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은 판매와 이익이 모두 2008년과 같은 수준으로 흑자를 유지하였다. 2010년에는 에너지 효율도 중요시하면서 업적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구주(歐洲)로의 실 수출을 주체로 하는 반둥(Bandung : 인도네시아의 자와섬 서부에 있는 고원 분지 내에 있는 도시 이름) 산지의 합섬 메이커인 ‘포리핀 향기’는 하루 생산 능

력이 220 톤이지만 197 톤을 생산하고 있다. 원료 가격이 올라 코스트가 올랐으므로 가격적 재고가 없도록 하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다. “중국에서 실을 생산하는 메이커는 많이 있지만 구주 고객 중에는 중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 브랜드는 3개뿐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우리들이 이 시장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많다.”고 하고 있다.

생산의 80%는 연신 가연 가공사(延伸 假撚 加工絲 : DTY)로 패션 의류 소재(fashion 衣類 素材)나 스포츠 소재(sports 素材)가 주용도이다. 원착(原着 : 원재료인 수지에 착색 물질을 첨가하여 섬유에 착색하는 방법으로 이를 줄여 原着이라고도 함)에 의한 카 시트(car seat) 용도로도 공급하고 있다. 생산 코스트로 원료비 외에 전기 요금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 등 규모가 큰 수요자에게 특별히 싼 요금을 정가(定價)로 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값 인상을 보전해 주겠다고 2009년부터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스리 무르야니 재무 장관은 2010년의 국가 예산에서 거출(據出)한 보조금을 이제까지의 157조 8천억 루피아(rupiah)에 43조 9000억 루피아를 증액하여 201조 7000억 루피아로 올리는 방침을 밝혔다. 크게 오르고 있는 국제 원유 가격의 가정치(假定値)가 1 배럴(barel)에 65 달러 ~ 77 달러로 인상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 중에 에너지용 보조금은 143조 2000억 루피아가 되어 2009년의 99조 9000억 루피아 보다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의 인상에 따른 영향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포리핀 향기의 경우에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전기 요금이 인상되었다면, 연간(年間) 20% 이상 코스트가 올라가는 줄 알았던 만큼 가슴을 쓸어내려도 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이 간단하게 바뀌는 것도 인도네시아의 특징이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전기 요금 인상을 걱정하여 회사에 따라서는 가스(gas)·석탄(石炭) 발전 장치를 구입하여 대비한 곳도 있다. 보조금을 식감하라고 주장하는 정치가도 있는 만큼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